

해양경찰, 인공위성 이용한 초국경 해양 감시망 구축



1 김홍희 해양경찰청장
2 해양 수호를 위해 출항하는 해경 경비정

최근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회장과 리처드 브랜슨 버진그룹 회장이 우주여행에 성공하면서 우주를 무대로 한 관광 경쟁이 본격화하는 형국이다.

미지의 세계로만 생각했던 우주에 한걸음 가까워지고 있는 시점에서 해양경찰청은 우주를 활용한 새로운 임무 공간 개척에 나섰다. 우주에서 지구를 보면 바다를 어느 곳보다 수월하게 관측할 수 있어 엄청난 면적의 바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단시간에 인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해양경찰청의 임무는 주로 함정, 항공기에서 시작됐다. 그러나 국토의 4.5배에

달하는 광활한 바다에서 시시각각 변하는 날씨, 극한의 환경과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현장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해경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공위성을 활용한 미래 목적형 경비체계를 구축한다. 이미 미국과 일본 등 해양 선진국에서는 MDA(Maritime Domain Awareness)라는 용어로 인공위성을 통해 바다에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업무에 직접 활용하고 있다.

인공위성을 활용하면 함정, 항공기가 출동하지 않더라도 먼바다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신속히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공위성은 해양경찰 역량을 한 단계 발전시키고 임무 전반에 크게 도움이 될 중요 자산이다.

해양경찰청은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한다. 과학기술

정보통신부를 비롯해 국방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유관 부처와 함께 추진해 2025년 인공위성 발사를 기대하고 있다.

인공위성을 도입하면 해양경찰의 활동 반경이 넓어진다. 200해리가 배타적 경제수역이던 해양경찰의 관할 개념을 전 세계 주요 해상 교통로인 중동 호르무즈 해협이 있는 3천해리까지 확장할 수 있다.

해경의 활동반경이 넓어져 지구 반대편 해역에서 일어나고 있던 2011년 아덴만에서 벌어진 해적에 의한 삼호주얼리호 피랍, 2017년 스틸라데이지호 침몰 등과 같은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 수동적인 감시 체계에서 능동적인 경비체계로 해양경찰 임무 패러다임이 획기적으로 전환된다. 인공위성으로 독도, 이어도 등 주요 해양영토에 외국 관공선이 접근하기 전에 인지하고 경비자원을 미리 배치하면 우리 해양주권 역량도 크게 강화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우리 해역 어족자원을 고갈시키는 불법조업 외국 어선의 주요 어업지를 위성영상과 AI(인공지능)로 분석해 배타적 경제수역에 도달하기 전부터 차단하면 어민들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은 “앞으로 우주도 해양경찰의 새로운 임무공간이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 해양 주권을 강화하는 데 필수 불가결한 자산인 인공위성을 이용한 초국경 감시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코로나 19
해양경찰청과
함께 이겨내요

